

여야, '2+2회동'...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 출범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여 '킵오프 미팅'...운영방향 등 논의 국힘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 민주 "의료대란 등 민생과제 해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2+2 회동에 나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공통 공약 협의의 창구다.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은 28일 오전 10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 나서 민생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자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만남에서는 의제 합의 보다는 협의체 운영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제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킵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첫 회의)'다. 일단은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여러 얘기를 할텐데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도체 지원법 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원칙이 있다. 11월1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8일 오전 2+2 회동

이 열린다. 장소와 시간은 오늘 중 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첫째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둘째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뱅크업하는 법안,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넷째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마지막으로 국회 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특검에 중독된 국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본다. 일하는 국회,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가 국회 모습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입장문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 의제로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협의체 출범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양당 회담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민생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도 비정쟁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강기정 "크로아티아와 문화·스포츠 교류"

주한 크로아티아대사 접견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다미르 쿠센(Damir Kusen) 주한 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대한민국 맛과 멋, 의의 도시이자 노벨상의 도시인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크로아티아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이고 광주 역시 유구한 역사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이다"며 환대했다.

강 시장은 또 "여자 프로배구 'AI 페퍼스'가 크로아티아 자비치 선수를 영입한 덕분에 광주와 크로아티아가 더욱 가까워졌다. 대사께서 직접 경기 관람을 하셔서 선수와 구단에 큰 힘이 됐다"며 대사의 AI 페퍼스 홈 개막전 경기 관람에 감사사를 전했다.

이에 다미르 쿠센 대사는 "말씀하셨듯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국가인데, 광주가 가진 문화예술의 깊이와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다"며 "광주는 인공지능(AI) 등 산업적 성과와 배구·야구·축구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성공도 대단한 만큼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쿠센 대사는 이어 "크로아티아의 자비치 선수가 AI 페퍼스의 일원이 됐으니 광주시민들이 크로아티아를 이웃처럼 생각해 달라"며 "KIA 타이거즈와 광주FC에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처럼 자비치 선수가 선전해 여자배구가 광주에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다미르 쿠센 주한 크로아티아대사를 환영하는 의미로 시청사 국기 게양대에 크로아티아 국기를 게양했다.

노병하 기자



추경호(오른쪽부터)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천하람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스

전남도, '도시계획·도시재생 연찬회' 성료

전남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2024년 도시계획·도시재생 연찬회'를 열어 도시공간 전문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연찬회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항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 지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시재생 혁신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지역 활성화 방안과 전남형 융복합 도시재생 비전 등을 소개했다.

도시계획학회 회원과 함께 도시재생학회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각자 분야의 미래 전략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남에 맞는 도시 공간 구성과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도시계획 제도 개편과 지역발전 전략'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조돈철 영국C&P 부사장이

'스마트도시기본계획과 스마트도시 발전 방안', 나주몽 전남대 교수가 연계·협력형 도시권 발전전략을 통한 전남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이동휘 동신대 교수가 '전남형 융·복합 도시재생 비전', 최우람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전남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고찰 성과를 공유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16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 만큼 도민이 행복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한 도시계획과, 권역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쇠퇴하는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명창환 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남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전남 조성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함께 희망찬 도시 비전을 그리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여 "국회 무한한 책임"...야 "특조위 지원·책임자 처벌"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대회 참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시공간에 국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해 "159개의 숨이 우리 마음속의 별이 된 지 2년이 흘렀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

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관련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책임자 처벌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폭력"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참사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참사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증거, 자료 확보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고도 지난한 싸움이 예상되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조국혁신당은 특조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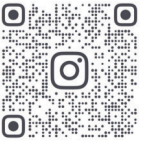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는 유가족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nilbo.com